

# ‘新稿’ 중심의 북한연구 집대성

을유문화사, 「북한의 인식」 전11권 기획

제6공화국 들어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 출판의 몇몇 특징적인 면모 가운데 첫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이념서적의 폭주와 함께 급격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북한원전 및 북한관련도서의 출간이다. 책의 사회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도서 출간붐이라는 현상 속에 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성격이 가장 특징적으로 집약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이같은 현상에 대한 공·부정간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바로알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그를 선도하는 출판인들의 전향적 작업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좌파산업주의의 시류에 편승한 경솔하고 무분별한 출판행위로 매도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북한에 관한 한 이제까지는 이른바 ‘左편향’과 ‘右편향’이 있었을 뿐 그 둘을 함께 아우르는 객관적인 시각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좌우편향의 왜곡된 북한이해를 정당하게 지양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시리즈물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다음달 중으로 우선 「북한의 역사와 사관」 「북한의 말과 글」 두권을 선보이게 되는 을유문화사의 ‘북한의 인식’ 시리즈가 바로 그것. 내년 봄까지 별권을 포함하여 전11권으로 완간될 예정인데, 아무런 학문적 여과없이 쏟아져 나오는 북한원전의 홍수 속에서 북한이해의 올바른 나침반 역할을 하리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左·右편향의 왜곡성 지양한 북한연구

을유문화사가 이 ‘북한의 인식’ 시리즈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연말의 일로, 6·25 발발 40주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편견없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보자”는 것이 애초의 기획의도였다. 실무책임 맡고 있는 高廷基전무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전문연구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폭넓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북한연구에 유용한 지침이 되게 하는 한편, 젊은이들이 북한을 보는 올바른 눈을 길러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출판사측이 기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가장 힘을 기울인 부분이 전문연구자들과의 광범하고도 심도있는 의견교환. 지난해

요근래 무분별한 폭주현상을 보여온

일련의 북한원전 출간에 대응해,

북한이해의 객관적 지침을 제공하는

「북한의 인식」 전11권이 간행된다.

이 기획물은 특히 출판사의 치밀한

기획과 학계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공익기관의 자금지원이 잘 맞물려 있는

가운데 출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기대가 크다.

말 이후 반년여에 걸친 준비기간 동안 주로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10여명 안팎의 북한전문가들과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회동한 끝에, 우선 11개의 대주제를 결정하고 그 각각의 대주제를 떠받치는 세목구성 및 그에 따른 필자선정까지를 맡을 권별 책임편집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위촉했다.

- ①북한의 주체사상-신일철(고려대)
- ②북한의 역사와 사관-김정배(고려대)
- ③북한의 정치-전인영(서울대)
- ④북한의 경제-이태욱(서강대)
- ⑤북한의 사회-강정구(동국대)
- ⑥북한의 통일정책-신정현(경희대)
- ⑦북한의 언론-유재천(서강대)
- ⑧북한의 문학-권영민(서울대)
- ⑨북한의 말과 글-고영근(서울대)
- ⑩북한의 예술-미정
- ⑪6·25를 보는 두가지 시각(별권)-미정

위와 같이 구성되는 ‘북한의 인식’ 시리즈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자료집으로 꾸며질 제11권을 제외하곤 각권의 내용이 100% 新稿로 채워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발표된 관련논문들의 안이한 취합이 아닌, 일정한 기획의도에 따라 새로 청탁된 원고들만을 묶어서 펴내겠다는 출판사측의 의욕은 돋보인다. ‘북한의 인식’이 계획대로 완간된다면, 권당 평균 수록논문 10편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넘는 전문학자의 연구논문을 한데 모은, 현대계로서 가장 광범하고 심도깊은 북한이해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기 때문이다.

## 새로 씌어진 원고들로만 편집대

에겐대, 곧 선을 보일 「북한의 역사와 사



평양제일백화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나온 평양시민들.

관」은 “북한의 사관은 무엇이며 우리 사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기술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힌다는 편집의도 아래 모두 10편의 논문을 한데 묶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체사상과 사관(신일철) ▲북한이 보는 선사시대(김정배) ▲북한이 보는 고대사(노태돈) ▲북한이 보는 통일신라시대(신형식) ▲북한이 보는 고려사(박용운) ▲북한이 보는 조선시대(최영호) ▲북한의 김옥균연구와 한말사 ▲북한이 보는 근대사(이현희) ▲북한정권 수립의 역사(김창순) ▲북한과 소련의 역사논쟁(서대숙) 등의 논문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조선통사」를 비롯한 북한역사서의 해제를 첨부했다.

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 그리고 말과 글의 실제 등을 폭넓게 분석한 「북한의 말과 글」 또한 모두 12편의 새로 씌어진 논문들을 함께 묶어놓고 있다. 수록논문은 ▲북한의 언어정책(고영근) ▲북한의 맞춤법(유목상) ▲북한의 문화어(남기심·김하수)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성광수) ▲북한의 로마자표기법(이상익) ▲북한의 문법(임홍빈) ▲북한의 화술(전영우) ▲북한의 언어예절(여중동) ▲북한의 속담(심재기) ▲북한의 사전(박금자) ▲북한의 한자교육(심경호) ▲북한의 언어분석(신현숙) 등이다.

「역사와 사관」 및 「말과 글」에 이어 10월중 출간될 예정인 「북한의 언론」과 「북한의 문학」도 위와 같은 세목구성의 기본틀은 동일하다. ‘북한의 인식’ 시리즈는 그런 점에서 결국, 북한이해의 전부분을 포괄하는 방대함과 그 방대함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는 세목구성의 치밀함이 단단하게 결합된 드물게 보는 값진

성과를 예고하고 있다.

## 출판사·학계·공익기관의 공동작업

한편으로 ‘북한의 인식’ 출간을 진행하며 부딪치는 출판사측의 어려움 또한 결코 적지 않다. 필자난이 그 대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예술」은 아직 책임편집자도 선정치 못한 상태이며, 그밖에 구체적인 세목은 정해졌지만 선뜻 나서는 필자가 없어 청탁하지 못한 원고도 적지 않다. 북한문제 자체가 우리사회의 知的 아킬레스踵이라 할 만큼 워낙 미묘한 문제인데다가, 좌·우편향을 다같이 지양하는 평형각각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시각의 기본틀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까다로운’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을 찾아내 필자로 동원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고정기전무는 말한다.

3억5천만원 가량으로 추산하는 제작비 조달 문제도 출판사 자체역량만으로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움이다. 특히 100여편의 원고에 대한 고료부담이 막중한데, 다행히 이 문제는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2억6천만원의 지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당 5천부씩을 초판으로 발행할 작정인데, 과연 이같은 작업에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북한의 인식’ 시리즈는 북한이해의 객관적 지침을 때때로 제공하는 시의적 유효성과 함께, 출판사의 성실한 기획과 전문학자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官邊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대로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이 이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강철주>